<토론글>

디지털 시대, 협공받는 중년기 가족에 대한 토론

신 화 용 (덕성여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중년기는 협공받는 세대가 아닐 수 있다는 논자의 주장에 대해 토론자는 생각을 달리 한다. 한국사회는 어느 나라보다도 부모-자녀관계의 응집력이 높고 자녀의 부모에(특히 어머니) 대한 과도한 의존이 당연시되는 문화이다. 따라서 자녀들의 대학입학이나 군입대, 결혼은 그 이전의 가족발달주기와 비교하면 母의 역할에 있어 감소를 가져오지만 서구사회에서와 같은 자녀들의 정서적, 경제적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노부모세대들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정서적, 도구적 요구를 거의 전적으로 중년기 자녀들에게 의존하고 있어 현재 한국사회에서의 중년기 가족은 서구사회에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으로 협공받는 세대라고 생각한다.

또한 발표자께서 지적하였던 것처럼 현대의 중년기 가족은 산업사회의 가치양식을 (대중화, 획일화, 규격화 등) 내재화시키면서 교육받고 생활하였으나 생의 상당부분을 정보화 사회에서 살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한국의 중년기가족은 협공받는 세대라고 생각한다. 이 상황은 특히 IMF 이후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었던 대부분의 인력이 중년기에 해당되며, 정보기술사용의 능력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이들의 재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다양한 기사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따라서 본 토론자는 현대 한국가족에서 중년기 가족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협공받는 세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년기를 기회로 삼으며 가족문제를 예방하고자 한다는 발표자의 관점에는 동의하며 중년기 부부의 성장을 위한 과제에도 원론적으로 대부분 동의하나 토론자는 과연 한국사회의 중년들이 과연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했고, 나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이며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물질적, 사회적 심리적 토대를 갖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개인주의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으며 안정적인 물적 기반이 제공되는 서구사회에서의 인간발달에 관한 방법론들이 한국사회에서의 적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치며, 자녀세대들의 개인주의화가 진행된 속도에 비해 현재의 중년들의 개인주의화는 상대적으로 덜 진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사회의 복지수준이나 주택문제, 직장의 불안정성 등이 과연 위의 문제들에 시간과 관심과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가? 혹은 지나치게 의존적인 자녀세대들이 자신들의 중년부모가 이러한 문제에 집중적으

로 매달릴 수 있도록 해주는가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문제로 생각된다.

중년기가족에서의 재구조화는 부부관계를 강화하며 부부 각자의 개인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자녀의 독립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원론에 동의하나 자녀의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으며 상대적으로 가족 내의 수평적 관계보다는 수직적 관계에 대한 비중이 높은 한국가족에서 이를 어떻게 이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포함되었으면 한다.

또한 현재 자녀세대의 정보화 진전속도와 중년기 부모의 정보화 속도의 차이는 가족원간의 대화단절, 공유시간의 단절, 서로 다른 생활시간과 공간을 조장시키며, 이는 대부분의 가족에서 세대간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한국적 현실을 감안하여 좀더 구체적인 문제제기와 대응 전략들이 제시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